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에 미치는 영향

박은미 · 유소연 · 장종화

한서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dental esthetics on life quality related to oral health(OHIP-14)

Eun-Mi Park · So-Yeon Yu · Jong-Hwa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It examines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dental esthetics upon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fter examining the satisfaction with dental esthetics and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according to subjective perception.

Methods : The subjects who have experience of dental esthetics from June 2010 to August 2010 in 50 places of hospitals and clinics with dental esthetics in Seoul, which were selected with convenience sampl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widely distributed to 315 people who agreed to research. After making the subjects respond with self-reported method, data was collected. 298 copies except 17 copi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 The better in the perceived general health group led to the higher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p=0.00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even in satisfaction with dental bleaching($p=0.030$). The better in the perceived general health group led to the higher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p=0.002$). The subjective perception was indicated to have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t dental esthetics or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The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beta=2.142$, $p=0.038$) was indicated to be relevant factor of having influence upon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by having subjective perception as control variable, the satisfaction with orthodontic treatment and the life quality related to oral health showed positive correlation.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6):863-870)

Key words : dental bleaching, orthodontic treatment, perceived health, perceived oral health, OHIP-14, satisfaction of dental esthetics

색인 :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구강건강인지, 교정치료, 미백치료, 심미치료만족도

1. 서론

구강건강은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신체적 건강, 자립, 사회적 관계와 환경, 심리적인 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치과심미치료는 교정치료나 미백치료를 의미하며, 오늘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과심미치료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치아교정치료는 치열 및 안모의 심미성을 추구하며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어 공인들과 일반인들의 필수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³⁾, 프랑스의 치과의학자 P. 포샤르가 1728년 기계적 장치로 부정교합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것을 시초로 2010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미백치료는 치과심미치료라는 큰 덩어리를 미백치료로 동일 시 할 만큼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증대시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⁴⁻⁶⁾, 환자 중 90%가 성공적인 미백 효과를 보이고 있어 미백치료가 하얀 치아를 얻기 위한 경제적·보존적·효과적인 치료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⁷⁾. 자신의 미적 만족감을 누리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착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요인인 커피 음용이 늘고 있는 것도 미백치료가 급부상하는 이유를 더욱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백치료는 미백제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치아미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8,9)}, 궁극적으로 심미치료가 대상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에 대한 치료 만족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며, 치과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과의 연관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OHIP는 Locker¹⁰⁾의 구강건강에 관한 개념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구강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 신체적 동통(physical pain), 정신적 불편감(psychological discomfort), 신체적 능력저하(physical disability), 정신적 능력저하(psychological disability), 사회적 능력저하(social 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 등 7개 개념의 총 4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도구이며⁷⁾, 현재 14개 문항으로 축소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OHIP-14가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¹¹⁾. 선행연구에서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이 OHIP-14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¹²⁾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심미치료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인지도 및 구강건강인지도,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OHIP-14의 정도를 살펴보고,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 및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심미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치과 병·의원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시에 위치한 치과심미치료 병·의원 50여 곳에서 치과심미치료(교정치료, 미백치료)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에 동의한 315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자료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에서 17부를 제외한 298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회수율은 94.6%였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2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문항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작성된 구조화 된 설문지를 구강보건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여 치과심미치료 경험자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맥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문항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 여부, 자녀유무, 월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 주관적 건강인지와 구강건강인지,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교정치료와 미백치료 만족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 및 구강건강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치과심미치료 만족도는 교정치료 만족도와 미백치료 만족도를 의미하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설문문항은 Slade¹³⁾가 개발한 도구에서 한국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여 개발된^{13,14)} OHIP-14를 이용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OHIP-14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OHIP-14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0.822로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PSS 12.0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용된 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및 OHIP-14의 차이는 One-way ANOVA 검정 후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다중비교를 수행하였다.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은 주관적 인지도를 통제변수로 한 편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3. 연구 성적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에서 여자가 77.5%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25세~29세가 35.9%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이 26.2%, 20세~24세는 24.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43.8%, 대졸이상 29.3%, 고졸이하 26.9% 순이었다. 직업은 전문직이 39.3%, 회사원은 31.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자가 77.7%로 기혼자 22.3%보다 높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44.0%,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1.2%,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19.1%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관적 인지도,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OHIP-14

주관적 인지,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및 OHIP-14를 최고점수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표 2>, 주관적 건강인지도는 3.36점,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심미치료 만족도는 교정치료 만족도가 4.09점, 미백치료 만족도는 4.02점이었고, OHIP-14는 3.15점으로 나타났다.

3.3.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표 3>은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정치료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다' 라는 응답자와 '나쁘다' 라는 응답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주관적 구강건강인지가 '좋다' 라는 응답자와 '보통이다' 라는 응답자간에 차이가 있었다($p=0.023$). 미백치료 만족도에서도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다' 라는 응답자와 '나쁘다' 라는 응답자 간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으나($p=0.030$),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3.4.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OHIP-14의 차이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OHIP-14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 주관적 전신건강인지가 '좋다' 라는 응답자가 '보통이다' 와 '나쁘다' 라는 응답자보다 OHIP-14가 높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7	22.5
	여자	231	77.5
연령	<20	41	13.8
	20~24	72	24.2
	25~29	107	35.9
	≥30	78	26.2
최종학력	고졸이하	80	26.9
	전문대졸	130	43.8
	대졸이상	87	29.3
직업	전문직	117	39.3
	회사원	95	31.9
	학생	56	18.8
	전업주부	9	3.0
	자영업	8	2.7
	기타	13	4.4
결혼여부	기혼	66	22.3
	미혼	230	77.7
월평균소득	<100	131	44.0
	100~<200	93	31.2
	200~<300	57	19.1
	≥300	17	5.7

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 따른 OHIP-14는 ‘좋다’ 라는 응답자와 ‘나쁘다’ 라는 응답자 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34).

3.5.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

〈표 5〉는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 상관분석한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과 구강건강인지도에 따라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및

표 2. 주관적 인지도, 치과심미치료 만족도 및 OHIP-14

특성	N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인지				
건강인지	222	1	5	3.36±0.77
구강건강인지	212	1	5	3.16±0.80
치과심미치료 만족				
교정치료 만족도	149	1	5	4.09±0.85
미백치료 만족도	129	1	5	4.02±0.77
OHIP-14	224	1.29	4.79	3.15±0.59

표 3.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의 차이

특성	교정치료만족			미백치료만족		
	N	평균±표준편차	P*	N	평균±표준편차	P
주관적 건강인지						
좋다	67	4.33±0.64 ^a	0.001	54	4.26±0.59 ^a	0.030
보통이다	60	3.93±0.95 ^{ab}		56	3.91±0.81 ^{ab}	
나쁘다	7	3.76±0.97 ^b		15	3.87±0.91 ^b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좋다	50	4.22±0.65 ^a	0.023	38	4.21±4.21	0.335
보통이다	60	3.87±0.91 ^b		56	3.98±3.98	
나쁘다	27	4.33±0.96 ^{ab}		27	4.07±4.07	

* by the one-way ANOVA test at $\alpha=0.05$

^{a, 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lpha=0.05$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표 3>과 <표 4>, 주관적 건강인지와 구강건강인지를 통제변수로 두고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에서 교정치료 만족도가 높을수록 OHIP-14는 높게 나타났다 ($r=.356$). 교정치료 만족도와 미백치료 만족도는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r=.362$).

3.6.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정치료 만족도($\beta=2.142$, $p=0.038$)는 OHIP-14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치료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9.5%이었으며, 수정된 설명력은 22.7%이었다.

4.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 단계를 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사회생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표 4.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OHIP-14의 차이

특성	구분	OHIP-14		
		명	평균±표준편차	P*
주관적 건강인지	좋다	98	3.27±0.58 ^b	0.002
	보통이다	92	3.09±0.58 ^a	
	나쁘다	28	2.80±0.59 ^a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좋다	73	3.27±0.65 ^a	0.034
	보통이다	92	3.12±0.53 ^{ab}	
	나쁘다	44	2.99±0.58 ^b	

* by the one-way ANOVA test at $\alpha=0.05$

^{a, 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lpha=0.05$

표 5.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의 상관관계

통제변수	특 성	1	2	3
주관적 건강인지	1. OHIP-14	1.000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2. 교정치료만족도	.356**	1.000	
	3. 미백치료만족도	.181	.362**	1.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alpha=0.01$

표 6.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Beta		
상수	1.528	.458		3.333	.002
교정치료 만족도	.333	.155	.342	2.142	.038*
미백치료 만족도	.066	.175	.061	.384	.703
주관적 건강인지	.162	.155	.184	1.043	.303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099	.122	.123	.811	.422

종속변수=OHIP-14

$R^2=0.295$, Adjusted $R^2=0.227$, $F=4.299(p=0.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t $\alpha=0.05$

하고 있다¹²⁾. 인성과 신체적인 매력의 관점에서 신체의 아름다움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외모의 향상과 정신, 신체적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위해 내원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아교정치료는 치과진료 분야에서 가장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선택 진료라는 점에서 의과 중 성형수술분야와 비교될 수 있으며¹⁵⁾, 기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치아미백은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미백약제를 사용해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들거나 변색되거나 색소가 침착된 치아를 원래의 색으로 회복시켜주는 술식으로¹⁶⁾ 미소 짓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소를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준다⁹⁾.

본 연구는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깊은 교정치료와 미백치료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치과심미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 남자(22.5%)보다 여자(77.5%)가 더 많은 것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8,12,17)} 치과심미치료 대상자에서 점차적으로 남성이 증가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한 선행 교정치료 연구 등^{2,12,17-20)}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5세~29세(35.9%)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점차 교정치료대상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는 역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대상자의 OHIP-14는 3.15점으로 박과 이¹²⁾가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보고한 4.04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에서 교정치료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인지도가 좋을수록 교정치료 만족도가 높았으며 '좋다' 라는 응답자와 '나쁘다' 라는 응답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강건강은 '좋다' 와 '보통이다'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이러한 결과에서 치열교정상태가 주관

적 건강인지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백치료 만족도에서도 교정치료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미백치료 만족도가 높았으나($p=0.030$),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따른 미백치료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0.05$). 이는 치아색상은 구강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 등⁹⁾은 치아미백 이유가 외적인 아름다움이 44.2%로 가장 높고, 웃을 때 자신감 37.5%이었다고 보고하였는 바 치아미백은 외모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OHIP-14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을수록 OHIP-14가 높았으며($p=0.002$), 주관적 구강건강인지가 좋거나 나쁠수록 OHIP-14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4$).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구강건강은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구강건강은 통제변수로 하여 치과심미치료와 OHIP-14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 만족도와 OHIP-14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교정치료 만족도($\beta=2.142$, $p=0.038$)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다.

총체적으로 치과병의원 심미치료 환자의 구강건강증진활동을 위해서는 치아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서울시 일부 치과병의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단면연구이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의 관련성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데 의의가 깊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설계가 보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6월 2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서울시 소재 심미치과 병·의원 50여 곳에서 치과심미치료 경험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주관적 건강인지도는 3.36점,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는 3.16점으로 나타났고,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에서 교정치료 만족도는 4.09점, 미백치료 만족도는 4.02점, OHIP-14는 3.15점으로 나타났다.
2. 교정치료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다'와 '나쁘다'라는 응답자 간에 차이가 있었고($p<0.05$), 미백치료 만족도에서도 주관적 건강인지가 '좋다'는 응답자와 '나쁘다'라는 응답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따른 교정치료 만족도는 '좋다'는 응답자와 '보통이다'는 응답자간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4. 주관적 인지도에 따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살펴보면, 주관적 전신건강인지가 '좋다'는 응답자가 '보통이다'와 '나쁘다'라는 응답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좋다'는 응답자와 '나쁘다'라는 응답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5. 주관적 건강과 구강건강인지를 통제변수로 두고 치과심미치료 만족도와 OHIP-14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 만족도와 OHIP-14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정치료 만족도($\beta=2.142$, $p<0.05$)는 OHIP-14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관적 건강 및 구강건강인 지도가 높을수록 치과심미치료 만족도가 높았고, 치아 교정치료 만족도와 OHIP-14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치과심미치료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적 관련 요인 등 병원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덕혜, 구민지, 이선미. 일부지역 고등학생들의 구강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치위생과학회지 2009; 9(1): 109-113.
2. 이경숙. 일부 지역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조선대학교 대학원;2003.
3. 정민호. 부정교합과 교정치료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교정학회지 2007;37(1):56-63.
4. 김려수. 치아 미백제의 농도와 적용 시간에 따른 치아 색상변화[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5. 류현. 치아미백 및 불소국소도포가 초기우식치의 색조와 투명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천안: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6. 호우진. 치아미백제를 적용한 횡수별 치아 미백효과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천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7. 김은희, 이동현, 오혜승. 자가 미백 처치 기간 중 커피 종류별 적용이 치아 착색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6):955-963.
8. 이혜진, 전은숙. 치아미백에 관한 부산시민의 인식 및 지식도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1):79-91.
9. 신민우, 지민경, 한명숙.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학생의 치아미백에 대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43-53.
10. Locker D. Measuring oral health: a conceptual framework. Community Dent Health 1988;5(1): 5-13.
11. Slade GD, Spencer A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 Health 1994;11(1):3-11.
12. 박영남, 이미라.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과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3):513-522.
13. Slade GD.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 short-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97;25(4):284-290.
14. Allen A, McMillan S. The impact of tooth loss in a denture wearing population:An assessment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slade. Department of DentalEcology 1997;35(2):8-12.
15. 이신재, 안석준, 백승학 외 5인. 수술-교정치료환자의 통제 소재. 대한치과교정학회지 2002;32(4):235-240.
16. 이광희, 허성윤. 치과보존학 4판. 서울: 고문사;2003:159, 161-167.
17. 박경아. 치과교정환자와 일반치과환자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2007.
18. 김영주. 지방흡입술 전, 후 신체상, 자기존중감 및 진료만족도 변화[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2006
19. 방사익, 김형준, 송영환. 미용성형수술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성형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01;7:1-7.
20. 백숙희. 성형수술 전, 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1998.